

제2장 방법

Methods

1. 사례수집 collection of cases

2007년 10월, 2004년에 출판되어 KoreaMed에 등재된 논문 9,030편 중 5%를 무작위 추출하여 중복출판 빈도조사를 시행하였다. KoreaMed (koreamed.org), PubMed (www.pubmed.gov), Google Scholar (scholar.google.co.kr), KMBase (kmbase.medic.or.kr)에서 검색하여 의심하는 논문을 3인의 전문가가 협의하여 중복출판 여부를 판정하였다. 이 중 5.9%인 27편이 중복출판으로 판정되었다. 그 이후 매년 비슷한 시기에 2005, 2006, 2007년도 출판 논문에 대한 중복출판 빈도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추출 작업과 판정 작업을 같은 인력이 계속 해오고 있다. 현재 4년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에는 2008년도 KoreaMed 등재 논문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례집의 대상 논문은 이렇게 4년간 조사하여 중복출판으로 판명난 논문과 기타 의문협 출판윤리위원회에 문의한 논문 및 여러 개인이 제공한 중복출판 예 100여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analysis

이 작업은 4명의 저자가 2009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9차의 회의를 거쳐 시행하였다. 100여 건의 예를 중복출판의 유형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복제(copy), 분절출판(salami), 덧붙이기출판(imalas), 기타로 나누고 이 유형을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중복출판 여부

및 각 유형 분류는 4명의 저자가 합의하에 정하였다. 중복출판으로 판정된 사례와 유사 사례 등 다수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들 중 중복출판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32례를 선택하였다. 사례가 노출될 경우 이 작업의 뜻과 어긋나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내용을 가상 예(simulated case)로 바꾸었다. 병원명, 저자명은 물론 질병명, 연구기간, 대상 수 등을 모두 바꾸어 누구도 원 논문을 찾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상으로 바꾼 증례가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

중복출판으로 판정한 논문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하였다. 우선 초록을 실었는데 이 초록은 원 논문의 초록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 및 대상 방법으로 대체하여 원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자와 소속, 가설, 대상, 연구방법, 결과, 새 정보를 기술하였다. 추가로 발표 학술지 관련 사항, 표, 그림, 참고문헌, 연구비 기술을 요약 비교하였고 마지막으로 중복출판 유형, 기타 출판윤리문제를 기술하였다.